



A Design for Life

Author and philosopher **Alain de Botton** discusses, among other things, the promise of enlightened capitalism and how to survive the pleasures and sorrows of work in the modern world.

BY SCOTT WILSON

영국 *Guardian* 지가 꼽은 “가장 인기 있는 철학자”인 알랭 드 보통과 얘기하는 것은 철학을 모르는 보통사람을 기죽일 거라 생각해도 무리는 아니다. 하지만, 그의 친근하고 예의 바른 겸손한 태도에 나는 매우 놀랐다.

〈프루스트를 좋아하세요 *How Proust Can Change Your Life*〉, 〈일의 기쁨과 슬픔 *The Pleasures and Sorrows of Work*〉, 〈불안 *Status Anxiety*〉 등과 같은 베스트셀러의 저자인 알랭 드 보통은 건축과 웰빙에 대한 권위자로 인정받고 있다. 나는 소설, 자기계발, 여행, 철학, 건축, 예술, 디자인 등 다양한 분야의 책을 낸 알랭 드 보통이 자기 일이 혼란스럽지는 않을까 궁금해졌다.

“제 일은 기본적으로 아이디어를 파는 것인데, 이상하고 뜬구름 잡는 소리처럼 들릴 수 있죠. 그런데 딜로이트 같은 회사도 결국 아이디어를 팔기는 마찬가지지만 사업 개선 등 적용분야가 아주 명확합니다. 저는 사람들의 내면 심리와 감정을 개선해주는 아이디어를 파는 사업을 하는 셈이죠.”

그렇게 다방면으로 책을 줄지어 내려면 창의성이 필수일 거 같다고 알랭 드 보통에게 말했다. 여러 분야를 관찰하고, 생각하고, 글을 쓰려면 어떤 프로세스가 필요하지 않을까?

“맞습니다. 건축이 글 쓰는 과정에 대한 가장 좋은 비유가 될 수 있겠네요. 처음에는 스케치로 시작하고, 구체적이고 자세한 기획으로 설계한 후, 시공하고 마지막에는 깔끔하게 마무리 하면서 세부적인 것까지 장식합니다. 건물이 아닌 글을 구성한다는 점에서 다르긴 해도 건물을 세우는 일과 아주 비슷한 거죠.”

알랭 드 보통은 2009년 TED 강연 *A Kinder, Gentler Philosophy of Success*(친절하고 상냥한 성공의 철학)으로 TED 커뮤니티 전체에서 널리 인정받고 미국 기업에 알려지게 된다. 그는 TED에서 영감을 얻어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해서 전달하는 수단으로 기술(Technology)을 수용하게 되었을까?

“2009년 옥스포드에서 한 연설 이후, 많은 기업들이 TED 연설을 보고, 현재까지 계속 접촉하고 있어요. 그 기업들의 초대를 받아 연설하고, 그들과 사고하고, 그들을 위한 글을 쓰죠. 그 한 번의 연설 덕에 제 생활이 많이 바뀌었고, 기업과 진행하는 프로젝트 등 해마다 제가 하는 일에서 점점 더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이 모든 것이 같은 장소에서의 한 번의 연설 때문에 시작된 겁니다.”

“정보통신 기술은 제게도 슬금슬금 다가왔죠. 제게 구식 출판 모델은 별로 효과가 없었어요. 구식 모델이란 어떤 나이 많은 출판업자가 책을 하나 출간하면 저자는 그냥 뒤에 서 있는 게 전부인 형태죠. 출판업자는 모두 구식이고 독자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작가 스스로 독자층을 구축해야 한다는 걸 저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소셜 미디어가 이 모든 일을 아주 쉽고, 저렴하게 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기회를 제공했고, 저는 소셜이 아주 편안합니다.”

그는 최근작 <일의 기쁨과 슬픔 *The Pleasures and Sorrows of Work*> 에서 다양한 전문직, 직업, 자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2년간 연구한 후 우리가 진정으로 일에 만족할 수 있는지, 실력제일주의 속에서 길을 제대로 찾을 수 있는지에 대해 모색했다. 진심으로 일을 즐기고 그 과정에서 의미 있는 삶을 영위하는 것이 가능할까?

“그 질문은 사랑에 관한 것과 비슷한 거 같습니다. 만족스런 관계를 맺는 것이 가능할까요? 이론적으로는 예, 물론 가능합니다. 어려운가요? 예, 대단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애정과 관계 발전에 대해 너무 많은 걸 상상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늘 생각합니다, 지금은 상당히 괜찮아 하지만, 더 좋아질 수 없을까? 일에 관해서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취직하면 처음에는 멋지다 생각하죠. 그러다 몇 년 후에는 승진하고 싶어하고, 승진하고 나면 내 사업을 하고 싶어하죠. 자기 사업을 시작하고 나면, 돈을 더 많이 벌어야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나도 돈이 좀 있긴 한데 빌 게이츠처럼 되지 말란 법은 없잖아? 이런 게 계속 되죠. 우리 모두 여러 잠재력이 있지만 현대 세계는 전문성에만 반응하고 보상을 제공합니다. 가장 이상적인 상황은 관심 있는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추고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일을 하지만 경쟁자는 별로 없어서 월급을 많이 받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사실, 자기가 정말로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다고 어느 날 문득 하고 싶은 일을 깨달았다고 해서 다음날인 바로 그 일을 찾아서 집중할 수도 없고, 하고 싶은 일을 다 할 수도 없어요. 나이를 먹고 가족이 생긴 후 커리어를 바꾸려면 엄청난 용기가 필요하니 월급은 꽤 많이 받지만 마음 속 깊이 일에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건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그러면 커리어에서 끊임없이 무지개를 쫓는 사람들이 실제로 일에서 성공하려는 압박에서 해방될 수 있을까?

“우리는 미국의 이데올로기가 이끌어 온 세계에서 살고 있는데, 그 이데올로기는 개인의 성취 및 모든 이에게 열려 있는 기회를 강조하지요. 아름답지만 가혹한 철학이에요. 개인에게 책임을 부여하고 실패라도 하면 수치스러운 일이 됩니다. 음, 우리는 성공을 숭배하지만 암묵적으로 실패를 응징합니다. 실업이나 직업에서의 실력제일주의가 초래하는 정신적인 결과는 정말 혹독하고 말이죠. 이에 대한 해결책은 일종의 집단적인 위로, 일의 어려움에 대한 인정과 한 사람의 잘못이 아님을 인정하는 거죠. 극소수 엘리트가 아닌 이상, 우리는 하루가 끝날 무렵이면 일을 제대로 못했다고 느끼게 만드는 성공철학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지요. 그 심리적 압박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개인의 고통이라 생각하지 말고 사회적, 역사적 현상임을 깨달아야죠.”





실패에 대한 공포와 성공을 향한 압박은 알랭 드 보통의 저서에서 반복 등장하는 주제이며, 의미 있는 삶을 향한 길을 찾는 방법에 대한 그의 여러 아이디어를 뒷받침한다. 알랭 드 보통의 베스트셀러 <불안 Status Anxiety>이 그런 주제를 꼭 짚어 얘기한다.

“이 책을 시작한 시점은 선진국 사람들의 가장 큰 공포는 직업상의 실패에 대한 것임을 알았을 때였습니다. 이러한 공포에는 역사도 있고 철학도 있어요. 그리고 이 공포에 대해 파악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인류는 일에서의 실패를 항상 생각했던 게 아니라 굶주림, 살해, 정치적 보복 등의 이유로 공포를 느꼈습니다. 과거의 인류와는 달리 모든 현대인은 매우 특별해야 하고 뭔가 특출 난 일을 해야만 하는 자기 스스로를 만들어가야 하는 존재예요. 이는 매우 현대적인 생각입니다. 나는 이러한 사상의 역사를 살펴보고 싶었고 그래서 미국의 역사를 공부했습니다. 미국은 이런 이야기가 세계로 퍼져나간 출발점이지요.”

“사회는 모든 이를 위해 평등한 기회를 원하지만, 모두가 평등한 결과를 얻진 못할 겁니다. 흔히 “루저 Loser”라고 불리는 경우가 많아지면 사람들은 자존감 Self-esteem에 상처를 입고, 심리적으로 고통받게 됩니다. 저는 이런 종류의 문제를 사람들이 전통적으로 어떻게 다루어 왔는지를 탐구하고 이해하고 싶었습니다. 이 책은 지금도 생명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계속해서 찾게 되는 책이죠. 이 책은 중국이나 한국 같은 세계의 다른 지역에서도 깊은 공명을 일으키고 있는데, 제 생각에 이들 지역은 사람들이 이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느끼고, 이를 극복하려고 매일같이 노력하고 있는 곳입니다.”

이런 어려움을 다루는데 당신의 책에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글쎄요, 격동의 시기에 로마제국에서 발전한 스토이시즘(스토아 학파의 철학 사상으로 냉정한 합리성이나 극기주의 또는 금욕주의 및 그런 생활태도를 지칭함)을 예로 들어보죠. 스토이시즘은 인생이 완벽할 수 있다고 우리를 위로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추구하는 바는 도전에 맞서 우리를 단련시키고 고난에 맞서는 영웅처럼 느끼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상적이고 즐거운 해결책은 아니지만 문제를 다루는 최선의 대응책은 일종의 스토이시즘적인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소수의 사람들만이 이러한 삶의 태도를 취할 수 있지만, 세상은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마음가짐을 갖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자칭 계몽자본주의 *Enlightened capitalism*에 대한 알랭 드 보통의 최근 생각은 파괴적인 기술 변화가 만연한 세계에서 보다 효과적이기 위해 기업이 과거보다 인간의 욕구를 더 많이 포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Maslow가 쓴 고전인 욕구단계설 *Hierarchy of Needs*을 21세기에 맞게 재편할 것을 제안하는 것인지?

“제가 보기에 자본주의란, 인류의 역사를 통틀어 인류가 가졌던 수많은 욕구에 대한 답을 마련한, 현재까지는 매우 유용하고 훌륭한 개념입니다. 하지만 자본주의 비평가들은 자본주의가 공허하고, 무의미하며, 영혼이 없다고 말합니다. Maslow의 유명한 욕구 피라미드(Pyramids of Needs) 측면에서 보자면, 자본주의는 피라미드의 맨 아래층에 에너지를 집중해서 이익을 창출했습니다. 미래에는 피라미드의 꼭대기를 향한 도전이 있을 텐데 꼭대기는 접속과 관계에 대한 욕구, 커뮤니티에 대한 욕구, 이해에 대한 욕구로 이루어졌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휴대전화와 커뮤니케이션을 예를 들지요. 이 분야는 우주에 있는 사람에게도 문자 메시지를 보낼 수 있을 정도로 기술적인 발전을 이뤘습니다. 그러나 동료, 친구, 가족과의 커뮤니케이션은 여전히 어려운 일입니다. 아이폰이 있더라도 말이죠. 기술은 보다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초보단계에 불과하고, 기업들은 골치 아픈 심리적 욕구에 충분히 투자하지 않고 있습니다.”

당신은 저명한 무신론자이기도 한데, 당신의 책 <무신론자를 위한 종교 Religion for Atheists>에서는 집단 의식 구축, 관계 지속, 질투와 부적절한 감정 극복 등에 대한 통찰력을 종교에서 찾아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종교의 어떤 요소가 계몽 자본주의의 영역에서 당신에게 정보를 주는 건지요?

“사람들이 인간 발전과 관계 있는 종교의식을 거행할 때, 저는 그 의식을 사람들이 고통을 덜 느끼게 하고 필요에 답을 주려는 일종의 메커니즘이라는 심리학적 관점으로 봅니다. 아시다시피, 종교는 아이디어를 전파하는 거대한 조직입니다. 불교는 기본적으로 평정에 대한 아이디어를 퍼뜨리지요. General Motors 같이 큰 조직이 평정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조직과 교류하는 모든 이들이 평정심을 갖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체계적으로 얘기합니다. 이러한 조직에 대한 연구는 매우 흥미진진한 도전입니다.”

요즈음에는 어떤 주제가 알랭 드 보통의 시간을 차지할까? 알랭 드 보통은 몇 년 전 런던 도심에 설립한 인생학교 운영에 상당 시간을 들이는 것 같다. 그의 말에 따르면 “인생학교는 일종의 윈스톱 샵으로 감정적 지성과 감정적 웰빙에 대한 많은 활동을 하죠. 수업과 세미나를 열고, 사업 컨설팅, 콘텐츠 생산도 합니다.” 내년에는 라이선스 사업이 가시화되어 멜버른, 서울, 암스테르담, 파리 등의 도시에 가맹점이 문을 열 예정이다. 이는 그가 기업가적인 기질을 발휘하여 사업의 영역을 더 깊이 탐험하려는 갈망을 살짝 보여주는 게 아닐까?

“저를 다른 작가와 구별하는 점 중에 하나는 삶에 대해 훨씬 더 실용적인 관점을 견지해왔다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술과는 매우 다른 분야에 몇 개의 사업체를 설립했는데, 이들 사업체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제가 해 온 많은 일은 사람들이 철학, 문학, 그리고 자신의 감정 등에 대응하는 방식을 바꾸는 것에 중점을 두었죠. 그 결과 인생학교를 만들어서 강의, 연설, 수업 등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제가 생각 중인 것은 이 세상의 모든 좋은 아이디어들이 어떻게 하면 권력과 연대할 수 있을지에 대한 것입니다. 비즈니스에서는 연대가 요즘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요.” DR

Scott Wilson Ph.D. 은 Deloitte Service LP 산하의 Deloitte Research에서 Technology, Media, Telecommunication 부문 연구를 이끌고 있다.